

참고 2.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¹⁾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대출²⁾은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연·누적되어온 자영업자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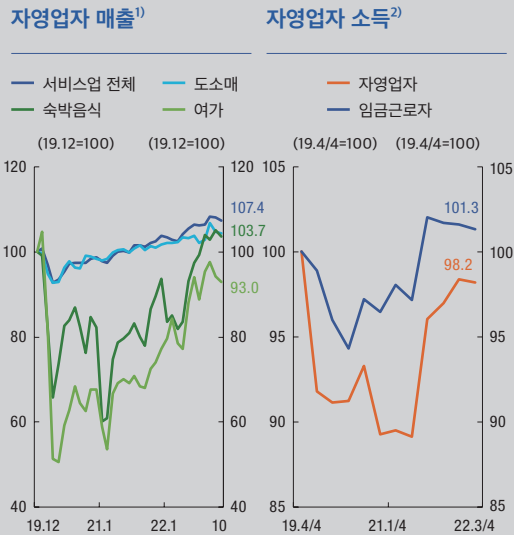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가계부채DB 등의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자영업자대출 증가 추이와 특징, 향후 경기 및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영업자 업황 및 대출 동향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가파르게 반등하였으나 2022년 9월 이후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며, 여가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³⁾에 따른 영업비용 증대 등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 1) 서비스업 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
 2) 실질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계절조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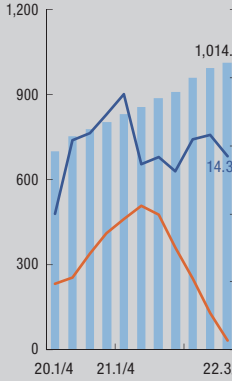
반면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4분기말 현재 1,014.2조원⁴⁾으로 대출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차주 유형별로 보면 그동안 자영업자대출을 주도했던 비취약차주(정상차주)의 대출 증가세는 2021년 2/4분기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취약차주⁵⁾의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2022년 3/4분기중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은 18.7%(전년동기대비)로 비취약차주 대출 증가율(13.8%)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1) 보고는 김재영·허정(안정분석팀)이 작성, 이대건(안정분석팀장)·조은아(경제교육실)가 검토하였다.
 2)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계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3)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기대비, %): 19년 0.7 → 20년 0.2 → 21년 9.0 → 22.6월 10.0 → 9월 8.0 → 10월 7.3
 4) 2022년 3/4분기말 자영업자대출 규모(1,014.2조원, 차주 수 309.6만명)는 개인사업자대출 665.1조원, 가계대출 349.0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분류하였다. 다만, 데이터 제약 등으로 보고에서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다중채무자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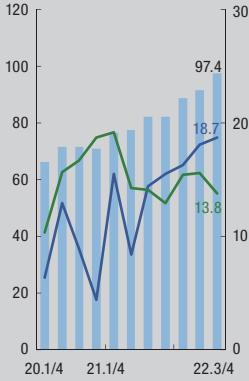
자영업자대출 잔액 및 증가율¹⁾

■ 자영업자대출 잔액(좌축)
 —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우축)
 — 가계대출 증가율(우축)²⁾



차주 특성별 자영업자대출 잔액 및 증가율¹⁾

■ 취약차주대출 잔액(좌축)
 — 취약차주대출 증가율(우축)
 — 비취약차주대출 증가율(우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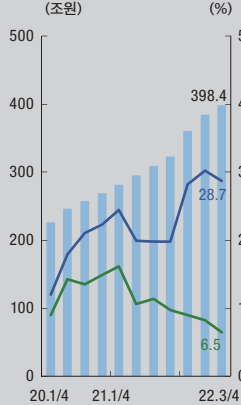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가계신용통계)

금융업권별로는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⁶⁾의 자영업자대출이 은행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4분기중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8.7%로 은행(6.5%)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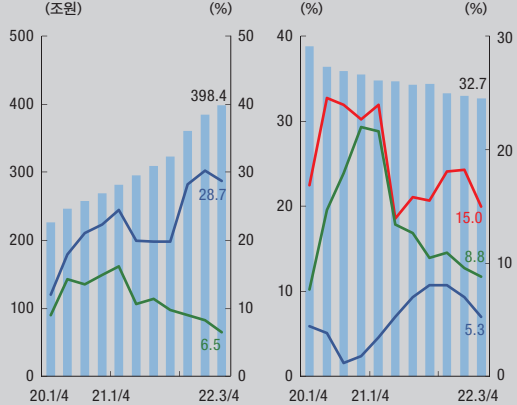
금융업권별 자영업자대출 잔액 및 증가율¹⁾

■ 비은행대출 잔액(좌축)
 — 비은행대출 증가율(우축)
 — 은행대출 증가율(우축)



업종별²⁾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및 비중³⁾

■ 부동산대출 비중(좌축)
 — 부동산대출 증가율(우축)
 — 대면업종대출 증가율(우축)
 — 비대면업종대출 증가율(우축)



주: 1) 전년동기대비
 2) 대면업종: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여가서비스
 비대면업종: 대면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 및 제조업 등
 3) 업종이 식별된 자영업 차주의 대출잔액 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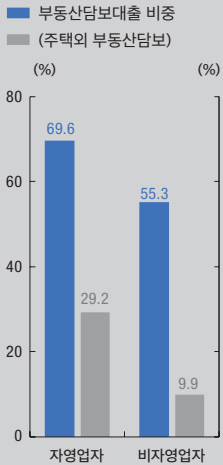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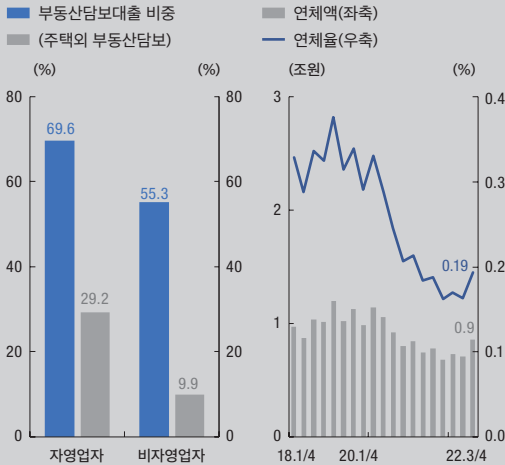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대면업종의 대출 증가율(2022년 3/4분기중 15.0%)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대출 비중(32.7%)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자영업자대출을 담보별로 보면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69.6%로 비자영업자(임금근로자 등 55.3%)에 비해 높으나 이중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약한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9.2%)이 비자영업자(9.9%)의 3배에 달해, 실물경기에 민감한 주택외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평가된다.

자영업자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2022년 3/4분기말 현재 0.19%로 그간 정부의

6) 2022년 3/4분기말 가계부채DB상 자영업자대출 차주의 업권별 평균 차입금리(가계대출 잔액 기준)를 추산해본 결과, 은행 3.6%, 비은행금융기관 4.9%(농·수협 4.5%, 새마을금고 4.0%, 저축은행 12.2%, 여신전문금융회사 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금융지원 조치 등에 힘입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는 모습이다.

부동산담보대출 비중¹⁾²⁾자영업자대출 연체율³⁾⁴⁾

- 주: 1) 2022년 3/4분기말 기준
2) 가계대출 대비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4)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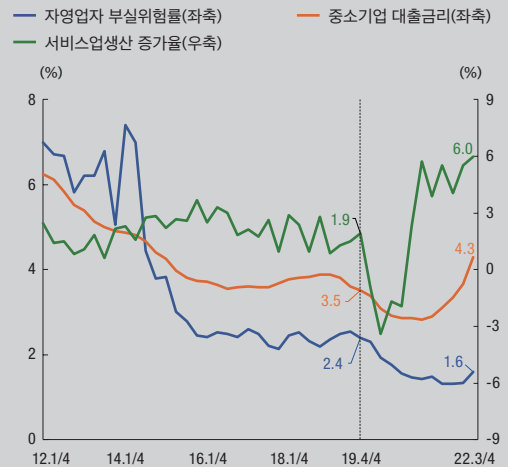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 추이 및 특징

이하에서는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을 광범위하게 포착⁷⁾하기 위해 연체가 시작된 차주와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차주가 보유한 대출잔액 전체를 부실위험대출로 분류하고, 동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부실위험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2년 이후 자영업자 부실위험률을 산출해보면 코로나19 이전(2012~19년중)에는 대체로 서비스

업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서비스업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부실위험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⁸⁾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손실보전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 금융지원조치들이 적극 시행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 부실위험률¹⁾, 서비스업 생산²⁾, 대출금리³⁾ 추이



- 주: 1)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보험회사,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합산 기준, 자료제약 등으로 2012년 이후부터 가능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중소기업 대출금리(잔액 기준, 기간중 월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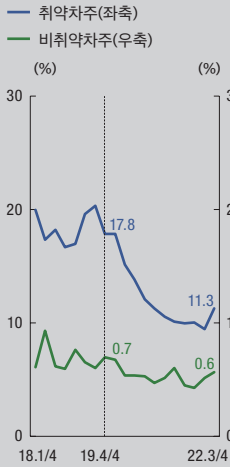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통계청

이러한 특징은 취약차주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2년 3/4분기말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1.3%로 코로나19 직전(19년말 17.8%) 대비 6.5%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0.6%로 같은 기간중 0.1%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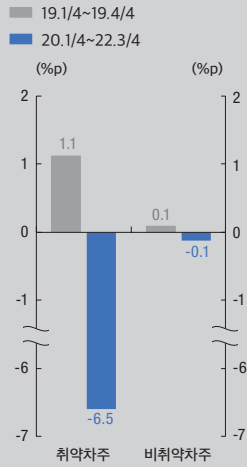
7) 통상 대출건전성 지표로 사용되는 연체율 지표(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가 차주의 신용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데다, 자영업자의 경우 다중채무비율(22년 3/4분기말 70.7%)이 높아 특정 계좌가 부실화되는 경우 연체적으로 다른 계좌도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체위험이 높은 차주의 대출잔액을 부실위험대출로 설정하였다.

8) 자영업자 부실위험률과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과거 2012~19년중 -0.31로 음(-)의 관계였으나, 코로나19 충격이 크게 발생했던 2020년의 경우 +0.33을 나타내었다.

차주 특성별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추이



차주 특성별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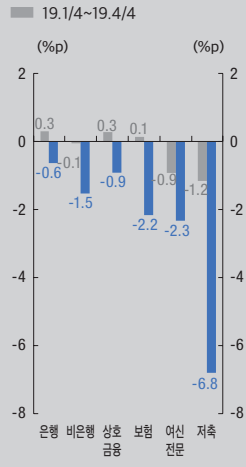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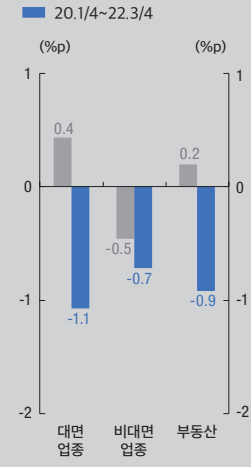
금융업권별로는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금융기관 부실위험률이 1.5%포인트 하락하여 은행(-0.6%포인트)보다 더 크게 하락하였는데, 취약차주 비중⁹⁾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6.8%포인트)과 여신전문금융회사(-2.3%포인트)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대면업종의 부실위험률 하락폭(-1.1%포인트)이 금융지원효과 등으로 비대면업종(-0.7%포인트)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지원 업종에서 제외된 부동산업의 부실위험률도 상당폭 하락(-0.9%포인트)하였는데, 이는 금융완화 기간중 조달금리 하락, 부동산경기 호조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변동폭



업종별¹⁾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변동폭



주: 1) 대면업종: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여가서비스
비대면업종: 대면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 및 제조업 등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향후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상승 효과가 확대되고 손실지원금 등 금융지원조치 효과가 점차 소멸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추정하기 위해 경기, 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

9) 2022년 3/4분기말 기준 금융업권별 자영업자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대출잔액 기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16.7%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 15.3%, 보험회사 12.4%, 상호금융 10.7%, 은행 8.1% 등의 순이다.

10) 자영업자 부실위험률을 종속변수로,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중소기업 대출금리(잔액 기준, 기간중 월평균), 금융지원정책효과, 전기 부실위험률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하였고,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추정 모형¹⁾²⁾³⁾

종속변수	설명변수					R-squared
	부실위험률(t-1)	서비스업생산증가율	중소기업 대출금리	금융지원정책효과	상수항	
전체 자영업자	0.559***	-0.045	0.841**	0.020	-1.927**	0.907
(취약차주)	0.532***	-0.226*	1.859***	-2.378***	2.270	0.952
(비취약차주)	0.598**	-0.019	0.470*	0.141	-1.383*	0.730

주: 1) ***, ** 및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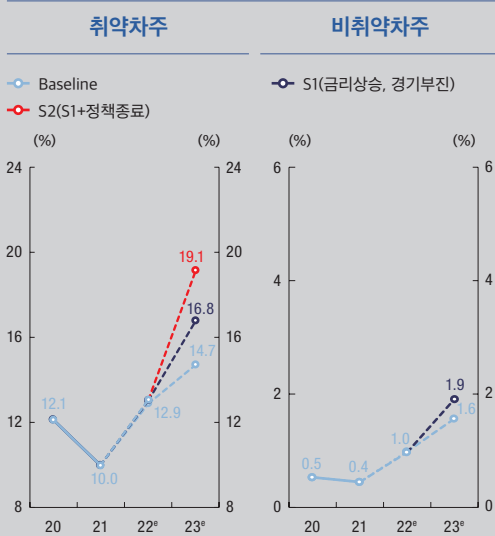
2) 분석대상기간은 2012년 1/4분기 ~ 2022년 3/4분기

3) 정책효과 변수는 코로나19 이전 시기는 0, 코로나19 이후 시기(2020년 1/4분기 ~ 2022년 3/4분기)는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업자 부실위험률 모형¹⁰⁾을 통해 대출금리 추가 상승(2023년중 평균 50bp 상승), 서비스업 경기 둔화¹¹⁾, 금융지원조치 효과 소멸 시 부실위험률 변화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향후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률은 금리상승 등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더해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부실위험률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차주 유형별로 보면, 금리 및 성장률 충격 발생시 비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9%까지, 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더해 정책효과가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9.1%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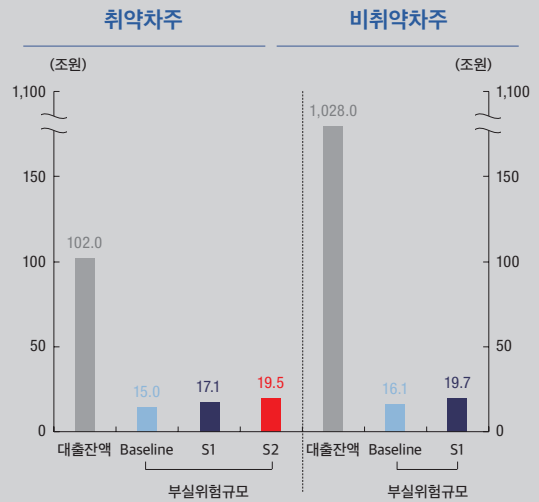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예상 부실위험률 경로¹⁾



주: 1) baseline: 대출금리는 22년 3/4분기말 수준 유지, 서비스업생산은 과거 평균 증가율(16~19년중), 한국은행 전망치(22.11월)를 고려하여 1.2% 증가로 전제
 S1: 23년중 대출금리 50bp 상승,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전망경로 하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0.7%로 전제
 S2: S1 가정 + 금융지원정책 효과가 소멸된다고 전제
 자료: 한국은행 시산

또한,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추세(2013~19년중 연평균 증가율 11.5%)대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2023년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대출 규모를 추정해보면, 취약차주는 15.0~17.1조원, 비취약차주는 16.1~19.7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정책효과 소멸시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대출 규모는 19.5조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실위험률을 이용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규모 추정¹⁾



주: 1) 2023년말 기준 차주별 예상 대출잔액 및 부실위험규모
 자료: 한국은행 시산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대출이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취급 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관련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까지는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될

11) 과거 평균 증가율(2016~19년중 2.0%)과 경제성장률(1.0%)의 한국은행 전망경로(1.7%, 22.11월 경제전망 기준) 하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3년중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이 0.7%에 그친다고 전제하였다.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¹²⁾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가 큰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촉진¹³⁾할 필요가 있다.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하고,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부동산임대업¹⁴⁾에 대해 과도한 신용공급을 억제하는 등 부실위험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¹⁵⁾ 아울러, 그간 수차례 유예하여 왔던 금융지원조치 종료로 사업성이 우수한 자영업자가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미시적인 정책적 배려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은 자영업자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자금지원을 넘어 자영업자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보다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¹⁶⁾을 지원하고, 지속 불가 사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12) 취약차주의 경우 비취약차주에 비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담보·보증대출 비중(22년 3/4분기말 기준 취약차주 79.0%, 비취약차주 82.3%)도 낮아 연체 발생시 금융기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13)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채무조정 신청액이 1.7조원(11.30일 누계 기준)에 그치고 있어 신청요건을 완화하거나 신청시 불이익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출발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8.26.)「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14) 2022년 3/4분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업종별 LTI(소득대비 부채비율)를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이 403.2%로 업종 전체(350.0%)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담보가치 하락시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15) 소득이 회복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채무재조정을 시행하는 등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유동성 지원에서 채무이행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주요 현안 분석 IV>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16) IMF는 코로나19 기간중 디지털화된 기업의 매출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4.4%포인트 적게 감소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Digitalization and Resilience: Firm-level Evid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MF Working paper, 2022년 2월)을 참조하기 바란다.